“광양 백운산에서 천고마비의 계절 즐겨요”

둘레길·4대 계곡·오토캠핑·자연휴양림 등 힐링 여행 추천

친환경 놀이터·목공체험 등 즐길거리↑…오감 만족 슬로푸드도

지난해 광양 백운산에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장관을 이뤘다. 〈광양시 제공〉

광양시가 기후변화로 부쩍 짧아진 가을을 아쉬움 없이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광양 백운산을 추천한다.

11일 광양시에 따르면 해발 1천222m의 백운산은 온대에서 한대까지 900여 종의 식물이 자생하는 생태 보고이자 호남정맥을 완성하고 섬진강 550리 물길을 마무리하는 명산으로 126여㎞에 달하는 9개 둘레길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을 갖춘 백운산자연휴양림이 둥지를 틀고 있다.

우리나라 26개 백운산 중 경관이 뛰어난 6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광양 백운산에는 정상을 중심으로 망덕산으로 이어지는 호남정맥, 가야산으로 이어지는 억불지맥, 계족산으로 이어지는 여수지맥 등 크게 3개 지맥 8개 등산코스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백운사-상백운암-정상 코스는 산행 시작 지점인 백운사가 해발 800m에 자리해 있어 왕복 3시간이면 정상까지 다녀올 수 있다.

진틀에서 오르는 2코스도 인기가 많다. 진틀-병암계곡-진틀삼거리-신선대-정상-약수-진틀삼거리-병암계곡-진틀마을 원점회귀 코스로 4시간이면 가능하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창한 원시림을 자랑하는 백운산은 도솔봉, 따리봉, 상봉, 억불봉 같은 봉우리들이 부챗살처럼 얽혀 있다. 구름이 봉우리를 넘지 못해 비를 뿌리는 일이 잦아 수량이 풍부한 성불, 동곡, 어치, 금천 4개 계곡을 거느리고 있다.

4대 계곡 중 가장 긴 동곡계곡은 백운산 정상과 따리봉 사이 한재에서 발원해 학사대, 용소, 선유대, 병암폭포 등 절경을 품고 있으며 추동섬과 동천을 돌아 광양만으로 흘러간다.

백운산은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목재문화체험장 등 휴식과 힐링,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보석들을 품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울창한 원시림에 숲속의 집, 오토캠핑장, 야영장 등 다양한 숙박시설과 세미나실,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갖추고 있는 휴식 공간이다.

치유의 숲은 삼나무, 편백나무숲에서 풍욕, 탁족 등을 즐기는 외부 프로그램과 아로마테라피, 명상요가, 족욕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내부 프로그램이 조화롭게 구성돼 있다.

목재문화체험장은 유아부터 성인까지 목재를 직접 느끼면서 작품을 제작해 볼 수 있는 목공체험 프로그램과 친환경 놀이터를 갖춘 복합문화공간이다.

4대 계곡, 둘레길을 따라 걸으면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등 참숯으로 고유의 풍미를 살린 음식과 섬진강에서 채취한 재첩국 등 자연이 허락한 ‘슬로푸드’도 입맛을 자극한다.

김성수 관광과장은 “광양 백운산은 등산, 둘레길, 계곡,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콘텐츠를 두루 품고 있어 부쩍 짧아진 가을의 정취를 한껏 만끽하기에 모자람이 없는 곳으로 광양불고기, 광양닭숯불구이 등 오감을 만족하는 광양의 대표 음식들을 함께 즐긴다면 천고마비의 가을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양=양홍렬 기자

김성 장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여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

47종·57대 가공 장비 구축

장흥군은 “최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장흥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총사업비 19억5천만원을 들여 장흥군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지상 1층의 연면적 390㎡ 규모로 건립됐다.

센터는 지역 농업인의 가공창업 활동 지원을 통한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 및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사용된다.

주요 시설은 위생전실, 전처리실, 습식·건식 가공실, 포장실, 건조실, 착유실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음료 및 농축액, 잼류, 건조분말 등 농산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47종 57대의 가공 장비를 구축했다.

농산물 가공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지만 가공시설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도 공동 가공시설을 이용해 시제품을 생산하고 상품화 하도록 지원가능하다.

창업교육 및 코칭, 기술개발 및 이전, 시설·기기 공동활용, 전문가 풀 구축 등으로 창업 준비부터 자립경영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활용해 지역 농산물 가공과 유통, 판매를 지원하고 기술이전을 통해 6차 산업 활성화로 다 같이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천연기념물 ‘큰고니’ 3년만에 순천만 월동

14마리 첫 먹이활동 관찰…탐조객 발길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가 순천만 갯벌 새섬매자기 복원터에서 첫 먹이활동을 시작했다.

11일 순천시에 따르면 큰고니는 오리과 고니속에 속하며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몸길이는 140-165㎝, 몸무게는 8-20㎏으로 순천만에서 월동하는 겨울철새 중 가장 큰 대형종이다. 주로 갯벌에서 사초과 새섬매자기 알뿌리나 하천 주변의 수초 뿌리를 먹으며 월동한다.

2012년 큰고니 170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했으나, 먹이원인 새섬매자기 군락이 쇠퇴하면서 개체수가 차츰 줄어 2022년에는 더 이상 관찰되지 않았다. 순천시는 올해 국가유산청 국비 지원을 받아 순천만 갯벌 1만㎡에 새섬매자기 10만주를 식재하고, 농경지 2만5천㎡에 연 3천300뿌리를 심어 안정적인 먹이원 조성으로 다시금 순천만이 큰고니의 단골 도래지가 될 수 있도록 공을 들였다.

특히 갯벌에 새섬매자기 식재는 순천만 어촌계 주민들이 뻘배를 타고 직접 복원에 참여해 주민 손으로 순천만 갯벌 새섬매자기 군락지를 복원해 낸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지난 2일 순천만에서 큰고니 2마리가 첫 도래한 후 4일 4마리, 7일 8마리, 총 14마리가 새섬매자기 복원터에서 먹이활동을 시작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큰고니는 순천만과 도심을 연결하는 깃대종”이라며 “순천만 생물종 다양성을 높여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도심 안쪽으로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순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흑두루미 7천600여 마리, 노랑부리저어새 70여 마리, 가창오리 1만여 마리가 순천만에서 월동하고 있어 탐조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순천=정기 기자

지난 7일 천연기념물 201호 큰고니가 순천만 갯벌 새섬매자기 복원터에서 첫 먹이활동을 시작했다. 〈순천시 제공〉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 구직자 1천여명 몰려

60여개 기업·기관 참여…33개 기업 현장 채용 면접도

여수시와 여수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2024 여수시 일자리 박람회에 1천여명의 구직자가 참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11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는 60여개 기업·기관이 참여했으며 직접 참여가 어려운 200개 채용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구직자와 소통하며 풍성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여수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여수상공회의소를 비롯한 13개 유관기관이 상담 부스를 운영, 여수국가산단 10개 기업과 여수전남병원, 보임코퍼레이션㈜ 등 33개 기업이 현장 채용 면접을 진행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한 창업 상담과 HR컨설팅 대표 권규청 교수의 취업 상담 부스는 문전성시를 이루며 837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특설무대에서는 김명신 ㈜쿠키아 대표, 박경하 여수야미 대표, 테크니션 스쿨을 통해 최근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한 정현수 군이 취·창업 성공사례를 발표하며 취·창업 준비생을 향한 진심 어린 조언을 펼쳐 호응을 얻었다.

이 밖에도 한영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 운영한 바리스타 체험과 무료 커피 나눔, 이력서 작성법·사진 촬영, 퍼스널 컬러, MBTI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많은 시민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행사였다”며 “내년에도 다양한 분야의 구인 기업을 발굴해 여러 경험과 경력을 가진 구직자의 수요를 충족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진선 기자

담양군, ‘탄소 저감’ 대나무 펄프 종이컵 지원

자매결연 中 의빈시서 25만개 수입…희망업소 신청

담양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국 쓰촨성 의빈시에서 제조된 대나무 펄프 종이컵(사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1일 담양군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군과 자매결연 협약을 맺은 의빈시와의 교류 협력 사업의 하나로, 양 도시간 우호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추진됐다. 현재 종이컵·뚜껑 25만개를 제작,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 수입이 완료됐다.

종이컵·뚜껑은 관내 음식점, 카페 등과 같은 식품접객업소와 종이컵을 사용하는 소매점 등에 지원될 예정으로 현재 담양군 관광과에서 사용 희망업소 신청을 받고 있다.

의빈시에서 제작한 종이컵과 뚜껑은 대나무 펄프를 원료로 제작됐으며 종이컵의 디자인 또한 담양을 상징하는 대나무를 담았다. 대나무는 다른 펄프용 목재에 비해 높은 광합성 효율을 가져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흡수해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고, 이를 활용한 용기는 매립이나 소각 시에도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 탄소 저감에도 탁월하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관내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카페에 대나무 종이컵을 지원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군의 대표 관광 아이템으로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깨끗하게 즐길 수 있는 음식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 기자

구례군,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 17명 양성

구례군은 11일 “지난 4월2일부터 7개월간 ‘구례 10·19연구회’ 주관 ‘여순사건 역사학당’을 운영해 여순사건 지역 전문가를 양성했다”고 밝혔다.

구례군은 2022년 1월부터 ‘여순사건법’이 시행된 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피해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다양한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 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회에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역사학당 기본과정을 운영, 23명의 수료자를 배출했으며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심화과정에서는 여순사건의 전개 과정과 구례군의 피해사례 등을 심도 있게 다루며 17명의 전문가를 최종 양성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군은 3천명 이상의 여순사건 희생자가 발생했으나 유족들은 그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삭이면서 살아왔다”며 “올 한 해 진행된 역사학당을 통해 군민들이 지역의 역사적 아픔에 공감하고, 여순사건의 진실을 공부함으로써 희생자와 유족들을 포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임종길 기자

화순군, 수능 당일 장애인 이동 서비스 제공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오늘까지 사전 접수

화순군은 11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는 중증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시험장까지 무료차량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화순군 장애인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에 여러 제약이 있는 장애인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획됐으며 장애학생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현재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차량 지원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며 필요한 인력과 차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사전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희망자는 화순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12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차량 지원 시간은 14일 오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이고, 이동 구간은 장애학생의 출발지에서 시험장까지다.

무료차량이동지원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차량 지원을 요청한 장애학생들에게 차량을 배정한다.

해당 사업을 통해 장애학생들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험장에 도착할 수 있으며, 이는 이들 시험생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천기선 장애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회장은 “앞으로도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